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귀국 보고서

1. 파견대학에 관한 기본 정보

- #1. Wisconsin 서쪽에 위치한 폴리텍 대학으로, 미대와 공대를 위한 시설들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 #2. 교환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숙사는 총 2개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친구와 함께 사용하고 싶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신청하지 않았지만 한 명과 같이 배정받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 Red Cedar : 제가 거주했던 기숙사이며, 기숙사들 중에서 가장 비싸고(약 3100달러) 좋다고 합니다. 학교 밖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10~15분 정도가 걸리지만, 학교 안까지 가는 버스를 바로 앞에서 탈 수 있습니다. 룸메이트가 3~4명이고 함께 사용하는 거실, 화장실(변기/세면대/샤워실 분리), 주방(냉장고, 전자레인지)이 있으며 개인 방(침대, 책상, 옷장)이 있어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이 기숙사를 추천합니다. 또한, 층마다 공용 공간(주방과 TV)과 세탁실이 있고 시설이 매우 쾌적합니다. 베이스먼트에는 팀플과 공부 등을 할 수 있는 방, 탁구대, 축구 게임대, 피아노실, 자판기, 세탁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기숙사 건너편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식사를 할 수 있는 다이닝, 편의점이 있습니다.
 - North Hall :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이 거주하는 곳(약 2100달러)으로, 한 방에 대부분 두 명이 함께 거주하며,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한다면 혼자 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을 사용하고, 공용 주방은 Red Cedar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시설로만 본다면 Red Cedar가 더 좋지만, 교환학생들끼리 하는 활동이 많아 금방 친해지는데, 이곳에서 생활한다면 다른 교환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또한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학교 시설들(도서관, 미대의 경우 작업실)을 늦은 시간까지 더욱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 미대생과 공대생을 위한 공간들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들과 도자기를 굽는 공간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미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맥북을 빌려줍니다.
- #4. 학교에 있는 모든 건물에 쉬거나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에서만 공부하지 않고 다양한 시설에서 자리를 옮겨 다니며 과제를 하거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 #5. 학식은 돈을 블루카드(학생증)에 미리 돈을 넣어두고,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주립 대이기에 1~3달러로 매우 저렴합니다. (다이닝에서 근로하는 학생들을 위한 금액을 따로 내야하지만, 그래도 저렴한 편입니다.) 주로 햄버거, 피자, 타코볼, 샌드위치, 파스타, 스테이크, 치킨 등이 나오고, 매 끼 바뀌는 편입니다. 메인 밀을 받고, 샐러드 바, 디저트 바와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뷔페 형식입니다.
- #6.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고, 원하는 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기 초에 동아리 부스가 열립니다.)
- #7. 자전거를 타고 싶다면, 학교에서 매우 저렴하게 빌릴 수 있습니다. 단,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버스를 타는 것이 나오니 강하게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 #8. 학교 내에서 근로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SSN(주민등록번호)를 신청해서 받아야하는데, 이는 Eau Claire라는 동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신청하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 함께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부분 dining이에서 하며 학교 내 상점, 전공건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2. 지역 및 생활에 관한 기본 정보

- #1. Wisconsin(캐나다 바로 아래)-Menomonie에 위치 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매우 춥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한 학기 프로그램으로 12월 말까지만 다녔는데, 1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우 추워진다고 합니다.
- #2. Minnesota-Minneapolis에 있는 공항을 이용했으며, 메노모니에서 약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친구에게 부탁해서 갈 수도 있지만, 꽤 먼 거리이기 때문에 주로 Groomy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한 번에 45달러이고, 공항에서 메노모니에 있는 작은 inn(학교나 Red Cedar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데려다 줍니다. 또는 하루에 두 번 오는 제퍼슨버스(학교 내에서 탈 수 있습니다.)를 이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공항으로 갈 수 있습니다.
- #3. 공항에서 우버나 리프트를 타고 동네로 들어올 수는 있으나 동네 자체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택시가 있는데, 문자로 예약을 하는 시스템이고 가격이 꽤 비쌉니다.
- #4. 처음에 기숙사에 침대가 2층에 배치되어 있는데, 1층으로 내릴 수 있고 방 구조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베딩의 경우 매트리스 외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미리 배송 가능한 주소를 받아 베개를 포함한 이불, 침대 커버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에 가면, 교환학생 담당자가 월마트에 데리고 가 주니 이때 필요한 것을 구매해도 됩니다.
- #5. 옷을 사거나, 새로운 음식점을 가고 싶다면 차로 약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Eau Claire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점, 작은 아울렛, 영화관 등이 있습니다.
- #6. 월마트, 영화관, 볼링장, 스타벅스, 패스트푸드점이 모두 학교 주변에 있지만 엄청 가깝지는 않은, 한적한 시골동네입니다. 월마트까지 가는 버스, 즉 동네 버스가 따로 있지만 오후 4시쯤에 끝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제안해주거나 부탁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 #7. 카페와 바(bar)가 많지는 않지만 큰 곳도 있고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베트남, 일식, 중식, 피자, 햄버거 등 꽤 많이 있습니다.
- #8. 빈티지샵들이 주변에 5~6개 정도 있습니다. 옷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습니다. 만약 쇼핑을 하고 싶다면 주문하거나, Eau Claire나 공항이 있는 미네아폴리스의 The Mall of America라는 매우 큰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9.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주변 공원에서 파머스 마켓이 열립니다. 잼, 꽃, 접시 등 다양하고 독특한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10. 한국 기준 2학기, 미국 기준 1학기에 간다면 땡스기빙, 할로윈, 크리스마스, 메노모니 동네 축제에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11. 주류의 경우 거의 매번 ID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권 혹은 영문 운전면허증을 챙겨야하며, 밤 9시 이후에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3. 수강과목 및 수업활동에 관한 정보

#1. Introduction to Families : HDFS(전공) / 가족관련 이론들을 위주로 배웠고 한 학기 동안 책(The Glass Castle)을 읽었는데, 수업 내용을 이 책에서 찾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교재(디지털과 책)를 읽고 퀴즈를 푸는 것이 매주 과제입니다. 또한 종종 수업 내용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적는 과제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활동지를 나눠주고 작성하는 경우가 꽤 있고 이를 같은 테이블 친구들과 나눕니다.

#2. Music in Our World : 음악(교양) /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며,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가장 인원수가 많았습니다. 음악의 역사나 흐름, 특징에 대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며 실제로 악기를 연주해주시거나 음악을 틀어주십니다. 다른 전공에 비해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교수님이 음악이나 예술에 대해 질문(교환학생 담당자분이 교수님께 저희는 교환학생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질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을 하실 때가 있는데 이때 학생들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 생소한 것이 많았습니다. 시험은 3번 보고, 듣기 평가가 있지만 요령만 익히면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퀴즈가 매주 있고, 음악 관련 과제는 4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3. Seminar on Self-Growth : HDFS(전공) / (아래 수업과 같은 교수님이셨는데, 엄청 잘 챙겨주셨습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나와 가족을 이해하도록 돕는 수업입니다. 처음에 소그룹을 랜덤으로 정해주시고, 그룹 학생들과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매 수업마다 있습니다. 작은 즉석 팀플도 있고, 수업이나 영상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가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찮아졌습니다. 보고서 형태의 과제가 매주 1~3개 정도 있고 매주 목요일마다 퀴즈를 봅니다.

#4. Skill Training For Individual/Family Interventions : HDFS(전공) /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상담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세와, 내담자와 상담을 할 때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배운 기법을 롤플레이 형식을 통해 실제로 활용해 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상담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 상담사를 직접 인터뷰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3번 수업과 같은 교수님이었기에 수업 방식이 매우 비슷했습니다.

- * 한 강의 당 수강인원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의 경우 전공은 30 아래, 교양은 60명 정도입니다.
- * 수업을 선택할 때, 가장 앞에 있는 번호가 학년을 나타냅니다.
- * 전공 중 선수과목이 필요한 수업들이 꽤 있습니다. 꼭 듣고 싶다면, 해당 수업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대의 경우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고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한국에서 선수과목을 들었다는 것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라고 하시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4. 기타 수업 외 활동에 관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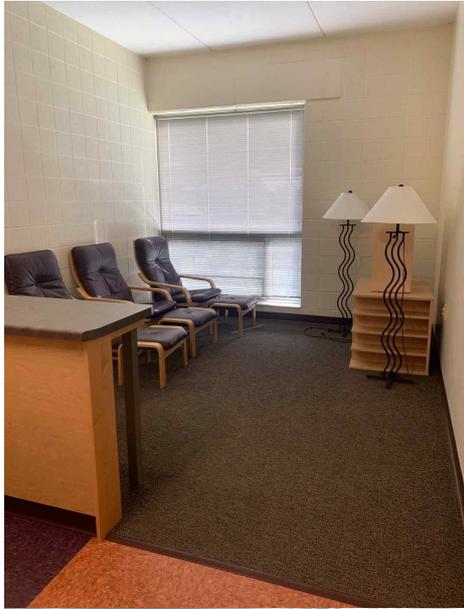
- #1.** 개인적으로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이 매우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노트북 대여비가 이미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을 빌리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조금 무겁지만 화면 터치도 가능하며 새 노트북을 백팩, 필통과 함께 줍니다.)
- #3.** 등록금의 경우, 납부하기 전에 꼭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Tuition Fee의 경우 instate(약 3500달러)가 아닌 outstate(약6000달러)로 되어 있다면, 교환학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가끔 같은 항목이 2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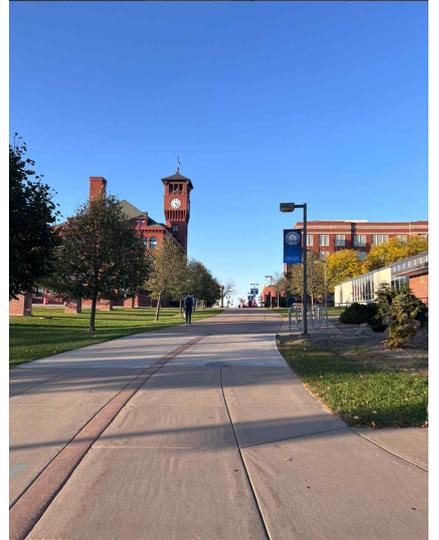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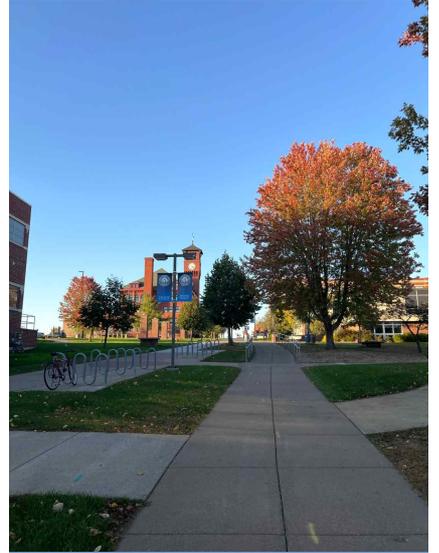
5.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 후 얻은 것/성취한 것에 관한 정보

- #1. 영어를 사용하는데 있어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저의 경우 함께 간 6명의 전공이 모두 달랐고, 저의 과에도 한국인이 있지 않았습니디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문법이 틀리면, 내 영어 발음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어떻게든 말해보자.'라는 상황 속에서 생기는 용기와 해결해 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영어를 말하는데 있어 자신감이 생겼습니디다.
- #2. 자연스럽게 실생활 영어가 능숙해졌습니디다. 주문할 때, 친구들과 small talk를 할 때, 흔히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고 이야기를 이어가야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 #3.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제 기준이기는 하지만, 유독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던 저로써 미국에서 생활하며 보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 편히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디다. 여러 친구들과 대화를 해 본 결과, 본인들의 개성, 생각, 스타일, 가치관이 강한 친구들이 많았고 다른 친구들을 이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는 대신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비교적 심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 #4. 시각의 폭이 넓어지고 시각의 깊이가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많은 수업일수록, 그리고 저의 과 수업 특성상 본인의 생각과 사적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았습니디다. 그래서인지, 정말 많은 친구들의 사고와 가치관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5.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미국인들은 물론 다른 국가에서 온 친구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약 70명), 새로운 인간관계는 물론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 #6. 발음 보다는 악센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이는 실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거나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 : 아메리카노 -> 아메리'카'노)

- #1. 제가 다녀왔을 때 기준,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2주 이상이 지나면 자가 격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 #2. 비자 신청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신청을 하던 도중 20초? 이상 움직이지 않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저절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매번 새로운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고유번호로 재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 #3. 함께 간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항상 함께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혼자였다면 알지 못했던 이벤트나 기회들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 #4. 카드는 한국에서 유학생/교환학생 카드라고 불리는 하나은행 VIVA플러스(visa)와 VIVA X(master)를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미국 카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지고 갔던 달러들을 넣고, 부모님이 외화를 송금해주시는 방식으로 돈을 사용했습니다. 이 미국 계좌는 여행용 비자로는 개설하기 어려우니, 나중에 한국에 올 때 돈을 조금 남겨둬으로써 계좌를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5. 인스타그램보다는 snapchat을 더욱 활발히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미리 다운받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6. 미국에서 사용하는 앱(은행이나 학교 앱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정과 앱스토어에서 국가를 바꿔야 하는데,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한 번에 바뀌지 않아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7. 한인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니지만, 가정집에서 일요일에 한인 목사님과 다른 한인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가 아닌 친구들도 함께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차량과 과제 도움도 많이 주셨고,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니 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국제교류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작성 안내

1. 파견대학에 관한 기본 정보

UWS는 미국 중북부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대학으로, 공대와 미대가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2. 지역 및 생활에 관한 기본 정보

1) 주변시설 및 교통편 - 학교 주변으로 상가와 주택들이 작게 모여있으며 상권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차타고 10분, 걸어서 한시간 정도 거리에 장 볼 수 있는 월마트가 있습니다. 캠퍼스 근처에는 카페, 바, 빈티지가게들이 주로 있습니다. 교통편은 학교 내에 다니는 셔틀버스 하나와 월마트와 캠퍼스 주변을 도는 커뮤니티 버스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2) 날씨 - 11월부터 갑자기 추워집니다. 겨울에는 특히 눈이 많이 내리므로 부츠나 겨울옷은 꼭 챙겨가야 합니다.

3. 수강과목 및 수업활동에 관한 정보

저는 장학교환이었고 제가 신청한 수업 두 개와 필수로 수강해야하는 영어수업 하나를 들었습니다. 영어수업은 ESL 이라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영어수업입니다. Reading & Writing을 배우는 수업이었지만 교수님이 영어로 말 할 수 있게 유도해주시고 잘 설명해주셔서 영어를 잘 못하는 저에겐 단비같은 수업이었습니다.

Textile theory는 이론 수업이었지만 Lab 형식이라 격주로 한번씩 실험이나 실기같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Ceramic 수업은 도자공예에 관한 기초를 배우는 실기 수업이었습니다. 만들어야하는 작품 가짓수가 많았지만 파이널에 모아서 평가하기 때문에 기한에 대한 부담은 없었습니다.

4. 기타 수업 외 활동에 관한 정보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앱을 설치하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교외로 나가 맥주 공장으로 견학 간 활동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학기 초에는 국제학생들을 위한 행사가 열려 학생들끼리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5.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 후 얻은 것/성취한 것에 관한 정보

우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영어가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프로그램 후에는 어느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교류하다보니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생각을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기타 참고사항(도착 후 해야할 일, 비자 신청, 현지 생활 등 관련 팁)

기숙사는 제가 알기론 2인실룸과 개인실이 있는 4인실 룸이 있는데 저는 Red Cedar hall 이라는 개인실을 썼습니다. 2인실룸이 비교적 저렴하지만 화장실이 방안에 없어 불편할 것같아 개인실을 골랐습니다. 이 방은 쉐어하우스 형태로 개인실 4개와 공용 주방, 공용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방을 혼자 쓰는거고, 단점은 수업 듣는 캠퍼스와 기숙사 건물 사이가 조금 멀다는 점입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귀국 보고서

1. 파견대학에 관한 기본 정보

University of Wisconsin-Stout는 11개의 위스콘신 주립 종합 대학교 중 하나로 작은 도시인 Menomonie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위스콘신 주립 대학교 시스템 중 유일한 폴리테크닉 대학으로 인문학과 함께 실용적인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학교입니다.

2. 지역 및 생활에 관한 기본 정보

캠퍼스는 south, north 캠퍼스로 나뉘져 있습니다. south 캠퍼스에 강의실이 있는 건물들과 도서관, 기숙사가 있고 north 캠퍼스에는 기숙사와 카페테리아 학교의료서비스 시설이 있습니다.

작은 도시로 우버나 리프트는 서비스지원하지 않습니다.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가 또는 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합니다.

3. 수강과목 및 수업활동에 관한 정보

저는 Business전공, Apparel전공 수업과 ESL수업을 들었습니다.

강의형태의 수업과 실습이 병행되는 수업으로 분류되는데

예술, 공과 대학 수업들은 한국 대학교에 비해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실습수업이 많았습니다. ○ ESI 수업은 영어수업 뿐 아니라 지역 및 생활에 대한 도움도 많이 줍니다.

4. 기타 수업 외 활동에 관한 정보

수업 외에 국제학생 교류 활동도 많고, 지역 주민들과의 시간도 가질 수 있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SSN(사회보장번호)만 받는다면 J-1비자 학생들도 교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5.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 후 얻은 것/성취한 것에 관한 정보

영어 실력 향상과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미국문화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시각이 넓어졌습니다.

6. 기타 참고사항(도착 후 해야할 일, 비자 신청, 현지 생활 등 관련 팁)

J-1 비자는 비교적 까다롭지 않게 심사되므로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교환학생을 가기 전 미리 영어회화공부를 많이 해 두고 오시면 좋습니다. 언어가 유창할수록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사람을 사귄 수 있으며,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